

밤이 오면, 두 가족은 등잔불을 밝히고 저녁식사를 했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라 투르 부인이나 마르그리트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도적들이 우글대는 유럽의 숲에서 밤길을 잃고 헤매는 여행객 이야기나, 폭풍우에 휘말려 어느 무인도 바위까지 떠밀려 내려온 난파선 이야기였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두 아이의 영혼은 열의로 불타올랐어. 폴과 비르지니는 부디 언젠가 그린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정성으로 맞아 보살피게 해달라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지. 두 가족은 헤어져 쉬러 가는 와중에도 다음 날 다시 만나고 싶어 안달이었네. 가끔 두 가족은 오두막 지붕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나, 저 멀리 해안가에서 부서지는 파도의 웅성임이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할 때도 있었어. 그들은 일신상의 안전을 기원하며 신의 가호를 빌었는데, 그러면 위험이 아무래도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때때로 라 투르 부인은 가족들 앞에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낭독해주곤 했네. 이 신성한 책들을 두고 그들이 이치를 따져 묻는 일은 드물었지.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은 자연신학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감정에서 우리나라온 것이었고, 그들의 윤리는 복음서의 윤리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일세. 기쁨에 마련된 날들이 따로 있는 것도, 슬픔 뭉